

KARA 제1차 항소위원회 결과

우리 협회는 지난 2016년 7월 10일 열린 “2016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제4라운드”와 관련한 KARA 항소위원회 개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
1) KARA 항소 내용

- ① 항소자 : 정의철 드라이버
- ② 내용 : 2016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제4전 SK 지크 슈퍼6000 클래스 결승 경기 중 내려진 푸싱으로 인한 30초 시간 가산 판결에 대한 정의철 드라이버 항소 요청의 건.

2) (사)대한자동차경주협회 항소위원회

- ① KARA 항소위원회 개최일 : 2016년 7월 22일 오후 1시
- ② 장 소 :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사무국
- ③ KARA 항소위원회 위원 : 박정룡 위원, 김덕호 위원, 심상학 위원

3) 항소위원회 심의 결정

항소자(정의철)는 타 선수와의 판정 차이를 이유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며, 이 같은 비교 심의 요청은 항소의 논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항소위의 공통적인 입장임.

또한 항소자가 언급한 타 드라이버 사례는, 관련된 별도의 항의나 항소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이번 항소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.

따라서 항소위원회는 당시 푸싱 상황의 사실 여부와 30초 시간 가산 벌칙의 수위가 타당했는지를 논의하였음.

그 결과 선행차의 후미를 추돌한 해당 사건은 항소자가 앞차의 속도와 위치를 예측하는 데 실패한 결과로, 의도성 여부를 떠나 과실이 인정됨,

심사위원회가 부과한 30초 시간 가산의 경우 공인 자동차경주대회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수위였다고 보여짐.

이에 2016년 제1차 KARA 항소위원회는 항소자의 요청을 기각함.

(사)대한자동차경주협회 항소위원회